

주변화된 남성성과 가부장제의 균열

정인혁*

<차례>

1. 서론
2. 종속적 남성성과 주변화된 남성성
 - 1) '결핍'의 낙인과 주변화
 - 2)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배제 양상
3. 주변화된 남성성과 종속적 여성성의 연대
4.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균열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東廂記纂』 소재 <金安國>을 통해 가부장제의 전통적 남성상에서 벗어난 주인공 김안국의 남성성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텍스트가 지닌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 살피고자 하였다. 소위 사회적 기준을 통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에 대해 재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텍스트에 재현된 김안국의 주변화된 남성성의 양상과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한 배제의 양상을 살폈다. 둘째,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배제되었던 김안국과 부인 이 씨의 연대의 관계를 살폈다.

부인 이 씨가 김안국의 능력을 끌어낸 방법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기준에서는 다소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파격적인 방법을 가능하게 한 이면에는 기존의 가부장제 사회의 질서 체제에서 벗어나 있는 주변화된 남성성과 타자로서 종속되었던 여성성 간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대가 있다.

<김안국>에서 김안국이 성공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주변인들의 인식 변화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추구하던 가치의 균열을 드러낸다. 가부장으로서 한 집안, 나아가 가부장제 사회를 이끌 김안국은 지금까지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왔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 조교수

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전통적인 양상에서 벗어난, 소위 ‘정상’을 벗어난 김안국을 가부장으로서 한 집안과 사회를 이끌 인물로 인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질서 체제는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일견 김안국이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가 제시한 기준, 곧 ‘과거급제’라는 기준을 충족했기에 가부장제 질서 체제가 공고히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하지 않았던 방법, 여성에 의해 주도된 이질적인 방법이 사용된 과정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지배해 온 공고했던 가부장제 질서는 한계를 자인한다. 이제 하나의 절대적인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규정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안국>은 이렇게 전통적인 남성성이 지향하는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주변화된 남성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사회체제를 공고하게 유지해 온 기존의 질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와 그것을 구성하기 위한 규칙과 방법들은 사실 허구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 남성성, 젠더, 헤게모니, 가부장제, 헤게모니적 남성성, 여성성, 연대

1. 서론

『東廂記纂』에 전하는 <金安國>은 사대부 집안의 장자로 태어난 김안국이 글을 못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에 의해 쫓겨났다가 아내와 글공부를 한 뒤 급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¹⁾

1) 『동상기찬』에 실린 80여 편의 이야기 중 대부분은 『記聞叢話』, 『靑邱野談』 등에서 발췌된 것인데 반해 <김안국>은 구체적인 출처와 지은이, 집필 연대 등에 관한 기록이 없다. 주인공 김안국과 그의 이야기가 실제인지 알려지지 않았고 텍스트 말미에 논평이 있다는 점에서 김준형은 <김안국>의 작가가 『동상기찬』의 편찬자인 백두옹(白斗鏞, 1872~1935)이 아닐까 추정했다. 김준형, 『사실과 허구, 『동상기찬』에 나타난 야담 인식』, 『국어국문학』 168, 국어국문학회, 2014, 231쪽; 김동욱, <동상기찬에 대하여>, 백두옹 편저, 김동욱 역, 『국역 동상기찬』, 보고사, 2004, 1쪽; 구인환 엮음,

〈김안국〉은 조선 후기 사대부 남성들의 글공부 실태와 과거시험에 대한 부담, 과거 제도에 관한 인식 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되었다.²⁾ 특히 글공부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출세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조선후기 과거 제도의 폐단을 드러낸다고 평가되었다.³⁾ 한편 부인 이 씨의 새로운 교육 방식이 주목되었다.⁴⁾ 부인 이 씨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과는 달리 학습자인 김안국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아무도 가르치지 못했던 김안국을 훌륭하게 가르쳤다는 점에 주목했다.

본 연구자는 지난 연구에서 〈김안국〉을 인물의 정체성 확립의 서사로 파악했다.⁵⁾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구성되는데, 매 순간 타자와 맺는 관계 속에서 타자와 구별됨으로써 획득되는 자체동일성의 측면에서 김안국은 김숙을 대표로 하는 가부장제에서 결핍된 존재로 인식된다.⁶⁾ 하지만 김안국의 타자성을 인식한 부인 이 씨의 새로운 교육 방법으로 인해 김안국은 변화하고 가부장 김숙 등은 김안국을 충족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김안국을 김안국이도록 하는 자기동일성의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김안국은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안동랑전』, (주)신원문화사, 2004, 149~150쪽.

2) 강명관, 「입시에 갇힌 ‘김 정승의 아들들’」(〈고금변증법〉, 『한겨레』 2008년 1월 18일)과 유광수, 「유광수 교수의 우리 고전 비틀기(16) 김안국의 ‘그릇’을 못 알아본 아들」(『월간조선』, 2017년 5월호) 참조.

3) 李佑成·林熒澤 譯編, 『安東郎』, 『李朝漢文短篇集』中, 一潮閣, 1996.

4) 이민희는 〈김안국〉이 ‘조기 교육’과 ‘주입식 교육’에 대한 비판의식을 흥미롭게 형상화한 작품이라 하였다. 특히 부인 이 씨의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수법에 주목했다. 이민희, 「〈김안국(金安國) 이야기〉에 나타난 교육방법 분석과 교육적 적용」, 『고전문학과 교육』 2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참조.

5) 즐고, 「〈金安國〉의 정체성 확립의 변증법」, 『한국고전연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6) 같은 글, 299~302쪽 참조.

하는 것은 부인 이 씨가 김안국을 상호 관계 속에서 또 하나의 주체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⁷⁾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하나의 의문을 남긴다. 김안국이 확립했다는 정체성이 실상은 김안국'의' 정체성이 아니라, 당대 사회가 김안국'에게' 부여한 정체성은 아닐까. 김안국과 부인 이 씨가 사용한 방법은 소위 '정상'에서 벗어났더라도 가부장제의 헤게모니 집단이 용인한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김안국이 획득하고 인정받은 '정체성'이 가부장제의 헤게모니 집단의 남성성을 그대로 획득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안국이 속한 가부장제 사회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획득만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정체성'에 관한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소위 그 문화 집단이 '구성한' 정체성인 것이다. 지난 연구에서 집단에 의해 배제되었던 김안국이 어떻게 재수용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폈다면,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김안국 자체의 남성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 사회체제 내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구성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핍'된 존재는 지배 관계 속에서 종속된다. 한 사회의 지배력을 가진 남성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 할 때 김안국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지배되는 종속적 남성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된다. 김안국이 결핍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사대부 남성에게 요구되었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곧 사대부 남성이 지녀야 할 능력을 지니지 못했기에 결핍을 지닌 결핍된 존재로 평가되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김안국이 결핍된 인물이 아니라면 김안국의 남성성은 단순히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서 파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선 살펴야 할 것은 김안국의 남성성이다. 본고의 목적은 김안국의 남성성 자체에 주목하여 그 특

7) 같은 글, 306~307쪽.

성을 살피고 김안국의 남성성이 텍스트를 통해 가부장제의 남성성에 대하여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2. 종속적 남성성과 주변화된 남성성

어떤 남자는 보다 남성적이고 어떤 남자는 덜 남성적이라는 진술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다양한 남성성의 존재를 가정할 수 있다. 어떤 사회든 동일한 문화 또는 제도 내에 다양한 남성성이 존재한다. 그 남성성들은 서로 협조하거나 대립한다. 그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지배하는 힘의 불균형이 불평등한 상황을 만든다. 그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서로 간의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형성한다.

코넬에 따르면 한 사회체제 내 젠더 관계의 양상에서 지배집단의 패권적 위치를 차지하는 남성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 한다. 이는 그 사회체제의 문화 내에서 남자다운 성격의 이상적인 형태를 의미한다.⁸⁾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지배 아래 놓이는 남성성을 종속적 남성성이라 한다. 공모적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지배에 공모하는 관계에 있다. 때로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폭력적 억압에 종속된 존재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반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결코 지배집단으로부터 제공되는 이익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그 행위의 양상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방식과 다르다 하더라도 공모적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 여성성을 포함하여 이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지배하는 집단의 젠더적 질서 체제를 구성한다.⁹⁾

8) R. W. Connell, *Gender and Power : Society, the person and sexual politic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p.83.

9)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한 국가나 사회에서 다른 남성과 여성을 종속하고 지배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Cheng, Cliff, "Marginalized Masculinities and Hegemonic

그러나 주변화된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지배하는 사회체제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다. ‘괴짜[nerd]’로 지칭되는 이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하여 종속되거나 공모자의 위치에 만족해야 하는 이들과 처지가 다르다. 그들은 만년 2인자의 자리를 지키거나 종속된 존재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반면 주변화된 남성성은 남성성을 덜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성[asexual]’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¹⁰⁾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부장의 지배 하에 놓인 여성이나 남성들과 달리 주변화된 남성성은 구성원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화된 남성성의 존재를 잘 모르는 이유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성을 구별하여 위협하고 착취함으로써 배제하기 때문이다.¹¹⁾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다른 남성성을 억압하고 지배할 때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며 존재한다.¹²⁾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지닌 지배집단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식이다. 지배와 종속으로 이루어진 체계에서 ‘지배’하는 남성성인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그에 ‘종속’되는 남성성이 존재해야만 의미를 갖는다. 군림하지 못하는 지배적 남성성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동시에 헤게모니를 쥐지 못한 남성성들은 인식되기도 전에 억압되어 사라지거나, 스스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종속되거나 공모함으로써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공

Masculinity: An Introduction”, *Journal of Men’s Studies: Thousand Oaks* Vol.7, Apr 30, 1990 ; 김성국, 『고전산책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사회비평』 5, 나남출판사, 1991 ; 이아람찬,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헤게모니적 남성성』, 『만화애니메이션연구』 19,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0 참조.

10) Cheng, Cliff, op. cit., p.14.

11) R. W. 코넬, 안상욱 · 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13, 68~69쪽.

12) 김수아 외, 『흙집과 결합의 남성성 : 〈무한도전〉이 표상하는 남성성의 사회문화적 의미』, 『한국언론학보』 58(4), 한국언론학회, 2014, 45쪽.

생한다. 반면 주변화된 남성성은 이러한 체제의 질서 및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존재에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기에 아예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안국의 남성성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1) '결핍'의 낙인과 주변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은 전체 남성 중 대략 5%에 지나지 않는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헤게모니가 유지되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다수의 남성들이 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아 동경하며 지지하기 때문이다. 많은 남성들은 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이상으로 여기며 존립하는 데에 공모하거나 지배 질서에 종속된다. 동시에 주변으로 밀려난 '주변화' 된 남성들이 존재한다. 김안국은 바로 다양한 남성들 가운데 지배적 남성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먼저 <김안국>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안국은 판서에 대제학인 숙의 장자로 태어난다. 그의 집안은 선조 때부터 대대로 문형을 지낸 집안이었다. 안국은 미목이 수려하고 용모가 훤칠하여 큰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이 가르쳐도 열네 살이 되도록 글을 깨치지 못했다. 선조의 명성이 떨어질 것을 걱정한 김숙은 다섯 살밖에 되지 않은 김안국의 동생 안세로 하여금 가문을 잇게 하고자 김안국을 추방하고자 하였다. 김숙은 안동 통판으로 나가게 된 종제 청에게 안국을 맡겼다. 김청 또한 안동에서 안국을 가르치려 했지만 실패하고 가르치기를 포기했다. 대신 부유한 안동 최수 이유신의 사위로 들여보내고자 하였다. 이유신은 김안국이 신체에는 흠결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만 글을 깨치지 못함을 들었으나 그 집안을 보고 혼인을 허락한다.

혼인한 후 김안국은 방 안에만 스스로 갇혀 지냈다. 부인 이 씨가 글공부에

13) Cheng, Cliff., op. cit., p.295.

대해 이야기하니 김안국이 글공부의 어려움과 그로 인해 쫓겨나게 된 내력을 설명하였다. 부인 이 씨가 김안국에게 역사를 풀어 이야기로 들려주니 안국이 즐거이 듣고 상세히 기억했다. 부인 이 씨가 안국의 글공부의 질곡을 이해하고 주야로 이야기해주며 외게 하였다니 마침내 김안국이 서경현전까지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문자도 배우기 시작했다. 장가 온 지 십 년 만에 김안국은 장인 이윤신과 처남들에게 문장 실력을 인정받게 되고 별시에 응시할 것을 부인 이 씨로부터 권유받는다. 김안국은 서울에 오면 죽일 것이라는 아버지의 명이 두려워 망설이는데, 부인 이 씨는 권도를 들어 먼저 글 솜씨를 보여 용서받자고 설득하였다. 서울에 도착한 안국은 유모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상봉하고 동생 안세를 따라 별시에 응시, 장원으로 급제하게 되었다. 처음 김숙은 급제 소식을 의심하였으나 안국을 감독했던 시관과 함께 시험함으로써 김안국의 문장 실력과 급제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김안국은 자신의 문장 실력은 부인 이 씨의 공이라며 이야기하고 김숙과 청 등이 모여 부인 이 씨를 칭송하였다. 부인 이 씨의 시가 사랑은 두터웠으며 김안국은 마침내 대제학에 이르렀다.¹⁴⁾

젠더로서의 ‘남성성’은 한 사회가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행위의 기준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남성은 그 사회적 기준이 제시한 ‘남성다움’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 그와 다르게 행동하는 남성은 남성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¹⁵⁾ 조선 사회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규정하는 기준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원리인 유교적 가부장제였다. 이것이 종속적인 여성성 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남성성도 규정하고 강화한다. 김안국은 ‘판서와 대제학을 지낸 숙의 자제로 그 삼사 대 선조 때부터 문장과 재망으로 대대로 문형을 잡았¹⁶⁾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기에 마땅히 유교적 가부장제 이

14) 백두용 편, 『東廂日記纂』 卷之二, 한남서림, 1918을 대본으로 국역은 백두용 편저, 김동욱 역, 『국역 동상기찬』(보고사, 2004)와 구인환 엮음, 『안동랑전』(신원문화사, 2004)를 참고.

15) R. W. 코넬(2013), 앞의 책, 112쪽 참조.

16) 金安國者는 判書大提學 淑之子也。自淑以上으로 三代를 皆以文章才望으로 世

테올로기를 배우고 실천하며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사람들은 불변하는 이상적 남성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러한 남성성은 신체와 결부된다. 진정한 남성성은 남성의 신체에 내재하며 몸으로 표현된다고 믿는다. 몸은 타고난 기계와 같아서¹⁷⁾ 생물학에서 특정 종은 그들만의 생물학적 특성과 그에 따른 특정 행동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모든 남자들은 똑같다고 믿어졌다. ¹⁸⁾ 영웅이면 으레 건장한 체격과 남자다운 근육질의 몸매를 갖고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생물학적 관점은 인간의 집단생활 양식인 문화 속에서 교육되고 재생산되면서 그 신체적이고 기질적인 성격이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는 인식으로 굳어졌다.¹⁹⁾ 이러한 남성성은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안국이 처음 태어났을 때 미목이 맑고 또렷하였으며, 용모가 빼어나고 듬직하였다. 그래서 숙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말하였다. “이 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집 자식이다!”²⁰⁾

김안국이 처음 태어났을 때 김숙에게 김안국의 신체적 양상은 사대부 남성에게 기대되는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에 모자람이 없었다. 김안국에 대한 사회생물학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가문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성적 생산력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증된다. 안동 지역의 양반 이유신은

典文衡이러니

백두용 편, 『東廂記纂』 卷之二, 한남서림, 1918, 27쪽. 국역본은 백두용 편저, 김동욱 역, 『국역 동상기찬』(보고사, 2004)와 구인환 역음, 『안동랑전』(신원문화사, 2004)를 바탕으로 원문과 비교하여 수정 보완하여 인용하였다. 以下 同.

17) R. W. 코넬(2013), 위의 책, 81쪽.

18) Cheng, Cliff., op. cit. p.295

19) R. W. 코넬(2013), 같은 책, 80~82쪽 참조.

20) 安國이 始生에 眉目이 淸揚하고 容貌이 峻茂어늘 淑이 愛重曰, 此眞吾家子弟也
로다 27쪽.

김안국이 사윗감으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바지를 벗기고 남성을 확인한다.

청은 병신인가 의심하는 줄 알고, 안국을 불러냈다. 팔 척 신장에 미목이 그림 같고 음성이 청량하여 참으로 서울 미소년이 아닌가. 유신은 마음속으로 탄복하면서도 고자가 아닌지 미심쩍었다. 묻고도 싶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청은 이 눈치를 차리고 안국에게 명하고 바지를 벗어보게 하였다. 고자도 아니었다. 유신은 안국이 서자가 아니며 병신도 아닌 줄 알고, 더욱 의심이 일어났다.²¹⁾

김안국의 신체는 사대부 남성에게 요구되는 모든 기대에 부합했다. 대대로 문형을 지낸 집안의 장자로 태어나 아름다운 용모와 문제없는 남성을 지닌 김안국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한 집안을 이끌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적으로는 어떤 결함도 찾기 어려운 ‘서울 미소년 양반’인 김안국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당대 ‘사대부 남성’이라는 종의 기준에서 벗어난 존재로 평가되었다. 왜냐하면 김안국은 마땅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던 글공부를 하나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국이 말을 하게 되자, 그의 아버지인 숙이 글을 가르쳤는데 석 달을 가르쳐도 ‘천지’ 두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 몇 년 후 대감은 안국에게 다시 글을 가르쳤으나 터득하지 못하는 것은 전과 매일반이었다. … 이에 주야로 안국을 가르치고 때때로 꾸중하였다. 글을 깨우칠 도리를 천만 가지로 차려보았으나 끝끝내 하늘천, 따지 두 글자도 해득하지 못하였다. 한 달이 가고 두

21) 不然이면 宦者也로다 復以詰之 訖니 淸이 知其疑病人也 訖고 招安國出來 訖니 身長이 八尺餘요 眉眼이 如畫 訖고 聲音이 爽朗 訖니 眞京華美男子也라 有臣이 心竊奇之나 然이나 猶未知宦之與否 訖야 欲將言而未能發 이어늘 淸이 料度其意 訖고 命安國脫袴則 又非宦也라. 有臣이 既知其非庶子而 又見其非病人 訖고 又生疑訝 訖야 29~30쪽.

달이 가고 한 해 두 해가 흘러서 안국의 나이 어언 열네 살이 되었다.²²⁾

김숙은 장남인 김안국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김안국의 글공부는 성취를 보이지 못했다. 김안국은 김숙의 사촌 동생 김청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한다.

청이 부임한 뒤에 생각하기를, 안국의 용모와 미목이 이처럼 예사롭지 않은 데 어찌 글을 가르치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내가 한번 가르쳐 보리라 하고는 공무를 보는 사이에 틈이 나면 안국을 불러 글을 가르쳤다. 그렇게 석 달을 가르쳤는데, 안국은 과연 ‘천지’ 두 글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이었다.²³⁾

아버지 김숙과 사촌 당숙 김청의 노력에도 김안국은 끝내 기초적인 글자 조차 터득하지 못했다. 김안국은 가부장제 남성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지배집단의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거리가 먼 존재로 인식된다. 그들에게 김안국은 사대부 남성에게 기대되는 문장력을 결핍한 존재로 여겨졌다.

그런데 김안국이 글공부에 성취를 보이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 주목할 점이 있다. 만약 김안국이 그들의 평가에서처럼 문장력을 결핍한 존재라면 노력에 비하여 성취도가 낮거나 아예 문식이 없는 천치여야 할 것이다. 즉 공부의 자질이 남들보다 떨어지거나 공부의 능력이 없는 것이다. 남들보다 뒤떨어진다면 석 달이 되어서야 겨우 ‘천지’의 두 글자를 깨닫든가, 습득 능력이 아예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터득하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야 할

22) 逮夫能言호야 父 | 教以文字호니 三月而 不能解天地二字라 ... 及期而 更教則又如是不解호니 ... 乃晝夜教訓호고 時時警責호야 凡所以解之之道를 千萬其方而 終未能解天地二字호야 如是者 | 一月二月이오 一年二年호야 安國之年이 已十四矣라 27~18쪽.

23) 淸이 旣赴任에 意謂安國之容貌眉目이 如此不凡호니 豈有不可教之理리오 且訓教之호리라 乃以簿牒之間에 召而教之호니 三月而果不能解天地二字어늘 김동욱 역, 앞의 책, 153~154쪽.

것이다. 이러한 부진이나 무능이는 지배집단에 종속되거나 공모자의 위치에서 여생을 마칠 것이다. 그러나 김안국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질을 보인다. 김안국은 이야기의 형태로 들으면 한 번만 듣고도 모두 기억하는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다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글자를 배울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은 안국에게 조용히 그 까닭을 물었다. 어찌하여 그렇단 말이나? 저는 전부터 심심풀이로 하는 잡담을 들으면 정신이 절로 맑아져서 밤낮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한 번 들으면 모두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만, 글자를 배우게 되면 비단 해득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글이라는 말만 들어도 정신이 절로 흐릿해지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기까지 합니다.²⁴⁾

김청은 김안국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생각하고 책방으로 돌려보내고는 더 이상 글공부를 시키지 않았다.’²⁵⁾ 그러나 김안국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한 부인 이 씨는 그의 특성을 간과하지 않고 고려하여 교육함으로써 김안국의 문장력을 발현시킨다. 김안국은 누구보다 뛰어난 문장력을 갖게 된다.

그녀는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듯이 풀어서 말해주며 남편의 타고난 재주가 어떤지를 시험해보고자 하여 안국에게 다시 물었다. …중략… 그녀는 『사략』의 첫머리인 천황씨 대목부터 이야기로 풀이 말해주니, 안국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가 들으면서 줄곧 아내가 이야기를 잘한다며 칭찬하자, 그녀는 『사략』 첫 권을 모두 이야기로 풀어서 말해준 뒤, 이런 한담 같은 이야기

24) 侄이 自前으로 若聞閒雜說話則 精神이 自明호야 晝夜 千萬言이라도 一聽而 能盡誦호되 至於文字호야는 不惟不能解也라 輒聽文之一說則 精神이 自眩호고 頭痛이 又作호니 叔主ㅣ殺之則 死耳矣호 至於文字호야는 實無可奈何로소이다 29쪽.

25) 淸이 知其末如之何也호고 命還冊室호야 無復教矣러라 29쪽.

라도 따라 해보지 않으면 곧 잊고 말 것이니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다시 외워 보세요 하고 청하였다. 안국이 선선히 대답하고 그녀가 이야기해주었던 것을 모두 외우는데, 빠뜨리는 것도 틀리는 것도 없었다. …중략… 안국은 제1권과 제1권 이외에 그 밖의 것들까지 모두 스스로 해득하였다.²⁶⁾

그리고 김안국은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급제한다. 그렇다면 김안국은 문장력이 결핍된 존재가 아니다. 김안국이 문장력을 결핍했다가 충족했다고 보는 것은 가부장제의 패권을 지닌 남성들이 자신의 기준에서 내린 자기중심적 평가일 뿐이다. 김안국은 가부장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집단이 전통적으로 용인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글공부를 해야 하는 존재였을 뿐이다. 김안국의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기준에서 결핍을 지닌 종속적 남성성이 아니라 지배와 종속의 질서를 벗어나 존재하는 주변화된 남성성이다.

2)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배제의 양상

조선사회에서는 유가의 학문적 성취를 통해 칭송받는 남성성이 지배력을 갖는다. 남자, 특히 양반 남성은 유교 경전의 이해도와 문장 실력으로 남성성을 평가받는다.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배집단에 종속된다.

김숙은 문장을 깨우치지 못하는 김안국에게서 장남의 자격을 박탈한다. 문제가 없다면 마땅히 장남으로 태어난 김안국에게 자신의 가문을 맡겨야 한다. 사대부 집안의 장남 김안국은 가문의 재산을 비롯하여 여성뿐만 아

26) 愆以言說노 諷諭호야 以試其才稟之如何也호야 復問安國曰 … 安國이 曰, 雖欲言之나 誰與言之리요 妻ㅣ曰, 請與妾으로 論說古語ㅣ可乎야. 安國이 曰, 顧所願也로라 妻ㅣ乃自天皇氏以下로 解其言호야 以語之호니 安國이 潛心仄聽이라. 輒聽에 稱其言之善이어늘 因盡解一卷而語之호고 乃曰雖如此閑說話라도 不可隨即忘却이니 請更爲妾還誦之호소서 安國이 曰 諾다 遂盡誦其言而 無所遺謬호니 … 一卷二卷之外에 皆能自解어늘 32쪽.

나라 장남의 권한이 없는 모든 남성들을 지배해야 한다. 그러나 김안국이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인 조선사회가 기대하는 남성성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김숙은 그를 종속적인 존재로 강등시킨다.

나는 저것이 아직 어려서 그러는 줄로만 여겼더니, 이제 이미 열네 살인데 저 지경이니 세상에 어디 저런 물건도 다 있을까. 우리 선조의 헉헉하신 명성을 장차 저 물건이 떨하리로다. 조상을 욕되게 하는 자식을 두느니 차라리 자식이 없어 제사를 철하게 되는 편이 나으리라.²⁷⁾

그리고 안동 통판으로 부임하는 사촌 동생 김청에게 안국을 맡겨 안동으로 보내고자 하였다.

숙은 안국을 불러 영영 결별함을 알렸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아들로 여기지 않을 것이니, 너도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말거라. 그리고 다시는 서울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라. 올라오면 죽일 것이니라.”²⁸⁾

김숙은 김안국의 동생 김안세로 하여금 가문을 잇고자 하였다. 김숙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안국을 보는 것이 싫었지만 ‘차마 죽일 수는 없’었고, 안세로 가문을 잇게 하고 싶었지만 장자인 안국이 있으므로 ‘예법에 온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

27) 吾 | 意 其年幼而然矣러니 今已十四而終始如此호니 世間에 豈有如許等人物耶 아 吾先祖赫赫然聲名을 此物이 將滅之호리로다 與其有忝先之子론 寧無子而絶祀요 28쪽.

28) 淑이召安國호야 永訣曰 自今以往으로 吾 | 不以汝爲子호리니 汝亦勿以我爲父호야 無復上來京師호라 來卽殺之호리라 29쪽.

안국의 동생 안세는 다섯 살이었다. 용모가 준수한 것은 안국에 미치지 못했지만, 재질이 총명하기로는 안국보다 약간 나왔다. 안세로 기문을 있게 하고 싶어도 안국이 있는데 예법에 온당하지 못하였다. 매양 어디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추방하려고 별렀지만 기회가 없었다.²⁹⁾

김안국은 겨우 다섯 살밖에 안 되는 동생에게 장자의 자격과 권리를 넘기고 안동으로 부임하는 숙부를 따라 떠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인다. 가부장제에서 기준에 부합한 ‘정상적’ 남성이 아닌 것으로 구별된 존재는 가부장제 하 여성에게서 발견되듯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동적 존재가 된다. 학대당한 여자들에게서 실제로는 자신을 돌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부여한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³⁰⁾처럼 김안국 또한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로 인정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김안국은 안동으로 쫓겨나기 전 글공부를 위한 수많은 노력이 모두 실패하자 아버지 김숙으로부터 무능하다는 평가를 듣는데, 이를 모두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내가 처음 말을 하게 되었을 때부터 부친께서 글을 가르치셨소. 그로부터 지금까지 14년이 되도록 끝내 ‘천지’ 두 글자를 해득하지 못하였소. 그래서 부친께서는 나를 집안 망칠 놈이라고 여기셔서 없애려 하셨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시고 이곳으로 쫓아 보내셨던 것이요.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부모님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소. 그러니 나는 사실 죄인인 셈이요.³¹⁾

29) 先時에 生小子安世 年已五歲矣라 容貌之俊秀는 雖不及安國 而才稟穎悟는 差勝於安國이여늘 欲以此로 爲嗣而安國이 在焉則於禮에 不倫矣라 每擬逐去無聞之所而不得矣러니 28쪽.

30) R. W. 코넬(2013), 앞의 책, 132쪽.

31) 始吾能言時에 父親이 教以文字 于今十四而 終未能解天地二字 故로 以爲 亡家之物이라하야 欲殺이 不忍故로 放逐于此地 使終身不復見於父母之目

이는 스스로 자신을 윤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안국은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을 떠나야만 했다. 아내의 지아버가 되어서도 안채를 벗어나지 못한다.

안국은 마침내 목욕재계하고 의관을 갖추어 입은 다음 사랑채로 나가 유신에게 인사를 올렸다. …중략… 10여 년 동안이나 얼굴 한 번 내밀지 않던 사위(32)

김안국은 생물학적으로는 좋은 혈통을 타고났음에도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가부장제 집단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 그는 지배집단의 헤게모니적 남성성과 거리가 먼 존재로 배제되고 소외된다. 신체에 기대되는 능력으로 남성성이 구축된다는 것은, 동시에 그러한 능력이 없을 때 그의 남성성 또한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³³⁾ 지배집단에 의해 인정받지 못한 김안국은 당당한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³⁴⁾ 혼인하고 십 수 년을 지내면서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에 얼굴 한 번 비추지 못하는 소외된 인물이 바로 김안국이었던 것이다. 김안국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배제되고 남편 입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공간인 사랑채로부터 다시 한 번 격리된다.

김안국은 아버지 김숙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기준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었던 것이

前 訶라하시니 我實罪人아라 31쪽.

32) 安國이 遂沐浴衣冠訶고 出拜於有臣訶니 … 安國之不出이 其間에 已十餘年이라 34쪽.

33) R. W. 코넬(2013), 앞의 책, 94쪽.

34) 이유향은 김안국이 문식이 없음을 알고도 사위로 맞이하는데 이는 김안국을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김안국 가문과 사돈을 맺음으로써 얻을 이익을 고려한 결과였다. 김안국을 사위로 맞이하면서 그의 생식능력을 살피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공모하는 집단이 김안국이라는 한 개인을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다.

다. 김안국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종속된 남성으로 스스로를 인식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된 결핍된 존재로서 규정되어 버리는 것이다.

3. 주변화된 남성성과 종속적 여성성의 연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제시하는 ‘정상’의 기준을 벗어난 것은 결함이고 결핍이며 틀린 것으로 평가된다. 김안국은 패권을 쥔 집단이 제시하는 기준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그들의 방법에 따라 시험당해야만 했다. 그리고 합격해야 했지만 실패한다. 김안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다. 지배해야 할 김안국은 종속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된다. 김숙이 김안국을 안동으로 내려보내고 다섯 살밖에 안 된 동생 김안세에게 장남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과 같은 소위 ‘정상’의 사대부 남성에게 의해 지배되는 가문을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아버지로부터 종속된 존재로 강등된 김안국은 고향으로부터 추방되어 안동 땅으로 내려와 다행히 고을 죄수 이유신의 사위가 되었으나 여전히 문장력을 결핍한 자로 인식되어 종속적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

종속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배제된 김안국이 주체로서 서게 되는 것은 부인 이 씨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³⁵⁾ 부인 이 씨는 김안국의 글공부에 관한 일을 들어 이미 포기했던 장인 이유신과 달리³⁶⁾ 먼저 말을 건네고

35) 이는 매우 상호적인 관계로 나타나는데, 김안국이 부인 이 씨와 관계 맺음으로써 동시에 부인 이 씨 또한 기존의 다른 가부장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지닌 남성들과는 맺지 못했던 관계를 김안국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부인 이 씨가 김안국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좋고, 앞의 논문 참조.

36) 본디 유신은 문장으로 자못 이름을 날려 고을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 그러나 안국의 글공부에 대한 일을 평소에 들었던지라 애초에 글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또한 일찍이 안국을 찾아보지도 않았다.

남편에게 글공부를 권유한다.

안국이 유신의 집에서 결방살이를 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문밖출입을 하지 않으니, 그의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중략… 글 한 줄 읽는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깨질 것 같으니, 지금부터 내 귀에 다시는 글공부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오. 그의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물러갔다.³⁷⁾

글공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김안국의 역정을 들으면서도 부인 이 씨는 김안국을 포기하지 않고 남편만을 위한 시험적인 방법을 시도한다.

남편인 안국이 부친께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면 한스러워 남편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다. …중략… 그녀는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듯이 풀어서 말해주며 남편의 타고난 재주가 어떤지를 시험해보고자 하였다.³⁸⁾

자신에게 내려진 규정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가두었던 김안국은 부인 이 씨의 진심 어린 걱정과 포기하지 않는 시도, 그리고 새로운 교육 방법, 곧 가부장들에 의해 전통적인 방법과 다르다고 무시되었던 방법을 통해 글공부에 성취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가부장제에서 종속적이기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여성으로서 부인 이 씨가 능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배제된 주변화된 남성성의 김안국을 동류로서 인식하고 그의 타자성을 받아들였

元來有臣이 頗以文名으로 稱於鄉里호고 … 然이나 素聞安國之事 故로 初不生教文之意호고 亦未嘗就見焉이러라 31쪽.

37) 安國이 舍於有臣之貳室호야 三月을 不出戶庭호니 其妻 | 從容問曰 大丈夫 | 久蟄房中호야 … 聽到文之一言則 頭骨이 欲碎호니 自今以往으로 請無復言文字於吾耳邊호라 其妻 | 歎息而退호니라 31쪽.

38) 每恨安國之得罪於父호야 思欲解教問字나 … 慾以言說노 諷諭호야 以試其才稟之如何也호야 32쪽.

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부인 이 씨는 김안국을 배려하여 전통적이지 않은 방법, 권도의 방법으로 문장력을 발휘하게 한 것이다.³⁹⁾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부인 이 씨와의 관계를 통해 볼 때, 김안국은 문장력을 ‘결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김안국의 남성성은 단순한 ‘종속적 남성성’과 다르다. 김안국의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배 관계에서 벗어난 주변화된 남성성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패권을 쥐고 있는 남성들이나 김안국 본인마저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김안국의 남성성이 헤게모니적 남성성과의 관계에서 요구되었던 것처럼 종속적 남성성이었다면 김안국은 김숙이 바란 대로, 김칭이나 이유신이 이해한 대로 안동의 처가에서 평생을 홀로 글도 읽지 못한 채로, 자기 방에 갇혀 살다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지배하는 질서 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평생 문장력을 ‘결핍’한 채로 살아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안국에게 있어 문장력은 결핍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것을 발현시키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김안국의 남성성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지배 관계에 놓인 종속된 남성성이 아니라, 그 질서 밖에 존재하는 남성성인 것이다.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상호 간의 관계는 크게 달라진다. 동시에 타자에게 비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이는 일방적으로 타자에게 보이는 대상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보는 주체가 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된다. 부인 이 씨는 후자의 위치로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글공부의 문제를 김안국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부인 이 씨는 바로 그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의해 종속되어 갇혀 있던 김안국을 결핍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바라보았다. 부

39) 졸고(2018), 308~314쪽.

인 이 씨의 상호주체적 바라봄을 통해 김안국은 종속된 수동적 존재가 아닌 하나의 주체로 설 수 있었다.

김안국과 연대하는 것은 역시 가부장에 종속된 부인 이 씨였다. 이들은 가부장제에 종속되고 그 질서 밖에 존재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나 공모적 남성성이 배제하거나 무시했던 것과 달리 상호주체로서 서로를 마주한다. 이들은 서로 연대함으로써 가부장제 질서에 종속되어 소멸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4.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균열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주변화된 남성성, 그러나 그것을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비록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미미해 보일지라도 <김안국>에서 김안국의 주변화된 남성성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바로 철옹성 같던 가부장제가 배제하고 주변화했던 남성성과 여성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김안국이 부인 이 씨로부터 문장을 배운 뒤 글을 짓는 것을 본 장인과 처남들, 그리고 아버지 김숙은 김안국을 인정하게 된다.

안국은 제목을 보자마자 구상을 마치고 붓을 달려 써서 바쳤다. 굳센 문체와 섬세하면서도 힘찬 필법을 본 그들은 모두 얼굴빛이 변하며 놀라 감탄하였다.

“이는 옛사람들이 쓰던 수법인데 안국이 해냈으니 참으로 대단한 변화로대!”⁴⁰⁾

그가 외우는 것을 듣고 나서 숙은 벌떡 일어나 안국의 손을 덥석 잡고 말하였다.

“꿈이나, 생시나? 네가 어떻게 그런 문장을 지었던 말이나? 네가 10년이나

40) 安國이覽即成篇 卽揮筆以進 卽文辭 | 適勇 卽고법法이精捷이어늘皆失色敬歎 曰此는古作者手段而安國이能之 卽此誠大變也로다 34쪽.

낮선 곳에 떨어져서 밤마다 등불을 밝혀놓고 서울을 그리는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 하하하! 참으로 놀랍구나! 우리 선조님들의 혁혁한 명성이 이제는 떨치게 되었구나. …後略⁴¹⁾

이제 김안국은 가부장제 양반 사대부에게 기대되는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김안국은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대대로 문형을 잡아 온 집안의 가장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부인 이 씨 또한 사람들로부터賢婦라 칭송받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인 이 씨가 그동안 스스로 감추었던 자신의 문식과 능력을 당당히 드러내고 인정받는다라는 점이다.⁴²⁾

안국이 쓴 글을 가져다 보니 세상에서 보기 드문 훌륭한 문장이었다.

“누가 널 그렇게 가르쳤느냐?”

“제 안사람이 가르쳤습니다.”

칭이 숙을 돌아보며 감탄과 함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형제가 평생토록 못 가르친 것을 안국의 처가 가르쳤으니, 우린 당당한 대장부라지만 도리어 일개 아녀자보다 못하군요.”

이 씨가 올라오자 숙은 온 집안사람들과 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41) 淑이聽畢에起執安國之手曰夢耶眞耶아汝何以成文章乎아可惜十年之隔面에殊方夜燈에豈堪望京之懷아噫嘻可歎이라吾先祖赫赫之聲이於是焉振矣로다 38쪽.

42) 이러한 주제의식은 『동상기찬』을 출판한 한남서림의 경관본 고소설 간행의 방향성에서도 재확인된다. 서혜은은 한남서림에서 간행한 고소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서민 여성의 갈등과 수난은 축소되고 귀족 남성의 갈등과 수난이 부각된다. 둘째, 서민 여성의 애정 서사가 부각되고 귀족 남성의 영웅 서사는 축소된다. 셋째, 가정과 사회의 현실 문제를 반영하거나 비판한 사실주의적인 성향의 판본이 간행되었다. 유교의 질서 체제와 이념에 대한 비판 의식이 투영된 판본을 간행했다. 따라서 한남서림 경관본 고소설은 근대지향적인 면모를 드러낸다고 한 바, 〈김안국〉의 서사에서 부인 이 씨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서혜은, 『한남서림의 경관본 소설 대중화 방안과 그 소설사적 의미』, 『語文學』 133, 한국어문학회, 2016, 169~200쪽.

“우리 아이가 글공부에 성공하여 선조님의 유업을 빛낼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우리 새아기의 공이로요.”⁴³⁾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동안 부정하고 배제했던 것들을 가부장제 지배 집단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일개 아녀자’가 해냈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공을 치상한다.

김안국과 부인 이 씨가 인정받는 이야기의 배경에는 가부장제 사회 남성들의 ‘욕망’이 숨겨져 있다. 그들은 문장으로 입신하고 가문의 명예를 떨치기를 욕망한다. 이것은 비단 위신의 문제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관직에 오르지 못해 한미해지다가 허울만 양반으로 전락한 이들에게는 바로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을 것이다. 비록 자신의 대까지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조상들에 대한 봉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질서체제에 있어 가문 유지의 위기감은 장남을 내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결정을 반복하게 하기도 한다. 문장력이 없다고 내친 존재였지만 김안국이 문장력으로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은 그와 부인 이 씨가 사용한 소위 ‘비정상적’인 방법과 이상한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시 가문을 이어받을 자리에서 밀려나야만 하는 안세의 처지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들이 꿈꾸는 욕망의 반영과 동시에 위기감의 반영이기도 한 것이다. 가부장제의 위기는 이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억압하고 배제했던 것들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이들의 욕망과 위기감은 기존의 전통적인 자신의 방법만이 절대적이라는 신념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김안국>에서 김안국과 부인 이 씨가 보여준 시도는 작지만 유의미한 균열을 가부장제 질서에 가하

43) 取見安國之文則稀世之文章也니孰使之然也오乃其妻之所教也라하니淸이顧淑歎賞曰吾兄弟에平生所未教者 則 其妻能教之 하니可以堂堂大丈夫로反不及一兒女子乎아李氏既歸에淑이大會宗族賓客 하니語之曰吾兒之作成文章 하니以光先祖之遺業者는皆吾新婦之功也라하니 39쪽.

기 시작한다.

〈김안국〉은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진 헤게모니적 남성성도 사실은 다른 남성성 및 여성성이라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헤게모니적 남성성도 스스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타자와 관계 맺어야 한다. 지배라는 것도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지배는 동시에 매우 허약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어 학습되는 젠더는 홀로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는 어떤 복합물에 불과하다.⁴⁴⁾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란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특정 시대, 특정 공간에서 구성된 이상적인 모델인 것이다. 따라서 남성성은 본질적인 성격, 평균적인 행동 양식이나 규범이라기보다 젠더의 사회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타자와 맺는 상호 관계에 맞춰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성성’은 젠더 관계 속의 장소이자, 그 장소에서 남자가 관여하는 실천이고, 그런 실천이 육체적 경험과 문화에서 만들어내는 효과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 작용에 따라 구성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⁴⁵⁾

물론 〈김안국〉으로 인해 김숙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질서가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원으로 급제한 장남 김안국으로 인해 김숙의 집안은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인 조선에서 더욱 명망 있는 집안으로서의 패권을 공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김안국으로 인해 우리는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 내에도 다양한 남성성이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배제되고 억압되어 종속되어 사라져간 남성성들처럼, 주변화되어 잊혀진 남성성이 있음을 되돌아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한 남성성의 존재가 김안국처럼 무력하게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도 드러난다. 김안국의 주변화된 남성성과 종속된 여성성의 연대는 공고했던 가부장제의 패권 집단으로

44)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16, 114쪽.

45) R. W. 코넬(2013), 앞의 책, 66쪽.

하여금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균열’을 가한다. 이것이 바로 〈김안국〉이라는 텍스트가 갖는 사회문화적 의의가 아닐까.

5. 결론

가부장제 사회에서 종속적인 여성성과 주변화된 남성성의 연대를 보여 주는 〈김안국〉은 이미 존재했지만 주목되지 않았던, 혹은 인식되지 않았던 다양한 남성성의 존재를 보여준다.

김안국이나 부인 이 씨가 자신들을 억압했던 지배집단의 기준, 곧 유가적 학문을 성취한 사대부 남성과 남편을 현달시킨 현부로서의 자격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는 〈김안국〉 역시 가부장제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배제되고 주변화되어 잊혀지고 주목되지 않았던 또 다른 남성성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에 가해진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폭력적 젠더 정치를 살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나아가 배제하고 종속시켰던 주변화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능력과 공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가부장제는 한계를 자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지배되는 종속적인 여타 남성성들과 여성성에 대하여 지배집단으로서의 표지를 갖기 위해 관계 속에서 변별적 측면을 강조한다.⁴⁶⁾ 김안국이 전통적인 유교적 가부장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추방당하고, 부인 이 씨가 글솜씨를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메커니즘이 그들을 자신들과 같지 않은 존재로 구별해낸 결과이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되어 추방당했던 김안국이 다시 가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인정받게 되고, 감취

46) 이아람찬(2010), 앞의 글, 40쪽.

야만 했던 부인 이 씨의 문장 실력이 드러나고 도리어 시가로부터 두터운 사랑을 받게 된 것은 김안국과 부인 이 씨를 구별하고 추방하여 배제했던 행위가 옳지 않음을 유교적 가부장제의 헤게모니를 쥔 집단이 스스로 인정한 사건이다. 이로써 김숙으로 대표되었던 공고한 가부장제 헤게모니에 균열이 생긴다. 이 작은 균열로 인해 그것은 이제 더이상 ‘완벽한’ 것일 수 없다.

‘남성성’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 또는 집단의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남성성은 개인뿐 아니라 개인이 맺는 사회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⁴⁷⁾ 따라서 남성성의 문제는 상호 작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남성성은 절대적인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남성성들이 존재하며 매 시대 다른 양상의 남성성들이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왔다. 만약 다양한 남성성이 존재하고 이 남성성들 간에는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 시대, 한 문화 내에서는 이상적이라 여길, 그러나 그렇기에 허구적인 남성성을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신화처럼 숭상하면서 여전히 누군가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동경하며 또 다른 남성성을 종속시키려 하고 주변으로 추방하고자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젠더의 끝없는 정치적 갈등 속에 가두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그 공고한 남성성의 절대성에 의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김안국>은 재평가되어야 한다. 김안국과 부인 이 씨로 인하여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남성성은 하나의 허구적 구성물일 수 있음⁴⁸⁾이 드러나고 의심의 여지가 없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절대적 코드의 유무조차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⁴⁹⁾

47) R. W. 코넬(2013), 같은 책, 77쪽.

48) 이소윤,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교체와 남성성들로부터의 탈주-〈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회, 2019, 36쪽.

49) 김수아 외, 『흙집과 결합의 남성성 : <무한도전>이 표상하는 남성성의 사회문화적

남성성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남성의 성적 정체성과 역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정의, 곧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로서 인식된다. 왜냐하면 다양한 남성성의 존재와 그 투쟁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고 정상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절대성을 의심하고 변화를 요구할 때, 소위 질서라는 이름 아래 모든 다양성을 억압했던 권위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⁵⁰⁾ <김안국>이 보여준 작은 균열을 유의미하게 생각한다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다양한 남성성의 존재와 억압되었던 모든 다양성들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의미], 『한국언론학보』 58(4), 한국언론학회, 2014, 42~69쪽.

50) 김서화, <남성성을 의심하라>, 《일다》, 미디어일다, 2015년 7월 8일자 참조.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153§ion=sc78)

참고문헌

- 백두용 편, 『東廂記纂』, 한남서림, 1918.
- 구인환 엮음, 『안동랑전』, 신원문화사, 2004.
- 백두용 편저, 김동욱 역, 『국역 동상기찬』, 보고서, 2004.
- 李佑成·林煥澤 譯編, 『安東郎』, 『李朝漢文短篇集』 中, 一潮閣, 1996.
-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16.
- R. W. 코넬, 안상욱·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13
- R. W. Connell, *Gender and Power : Society, the person and sexual politic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 강명관, ‘입시에 짓눌린 ‘김 정승의 아들들’, <고급변증법>, 『한겨레』 2008년 1월 18일.
- 김동욱, 『동상기찬에 대하여』, 백두용 편저, 김동욱 역, 『국역 동상기찬』, 보고서, 2004, 1쪽.
- 김서화, <남성성을 의심하라>, <<일다>>, 미디어일다, 2015년 7월 8일자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153§ion=sc78)
- 김수아 외, 『흡집과 결합의 남성성 : <무한도전>이 표상하는 남성성의 사회문화적 의미』, 『한국언론학보』 58(4), 한국언론학회, 2014, 42~69쪽.
- 김성국, 『고전산책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 『사회비평』 5, 나남출판사, 1991.
- 김준형, 『사실과 허구, <동상기찬>에 나타난 야담 인식』, 『국어국문학』 168, 국어국문학회, 2014, 203~235쪽.
- 서혜은, 『한남서림의 경관본 소설 대중화 방안과 그 소설자적 의미』, 『語文學』 133, 한국어문학회, 2016, 169~200쪽.
- 유광수, 『유광수 교수의 우리 고전 비틀기<16> 김안국의 ‘그릇’을 못 알아본 이들』, 『월간조선』, 2017년 5월호.
- 이민희, 『<김안국(金安國) 이야기>에 나타난 교육방법 분석과 교육적 적용』, 『고전문학과 교육』 2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4, 131~167쪽.
- 이소윤,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교체와 남성성들로부터의 탈주<세계본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3, 한국구비문학학회, 2019, 36쪽.

- 이아람찬,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헤게모니적 남성성」,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19,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0, 37~30쪽.
- 이주라, 「탕부(蕩婦)의 남자와 힘의 동경-식민지 조선의 남성성과 욕망」, 『한국문예비평연구』 60, 한국문예비평학회, 2018, 43~68쪽.
- 장은영, 「2000년대 이후 한국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의 해체와 남성성의 균열」, 『인문학연구』 26,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89~115쪽.
- 정인혁, 「〈金安國〉의 정체성 확립의 변증법」, 『한국고전연구』 4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291~315쪽.
- 한양하, 장시광, 「상사백 설화로 본 남명의 남성성」, 『남명학연구』 65,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20, 99~129쪽.
- Cheng, Cliff, "Marginalized Masculinities and Hegemonic Masculinity: An Introduction", *Journal of Men's Studies: Thousand Oaks* Vol.7, Apr 30, 1990, 295~315쪽.

ABSTRACT

Marginalized Masculinity and an Aspect of the Crack of Patriarchy

Jung, In-hy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asculinity of Kim An-guk, the main character who is excluded from the traditional male image of the patriarchal system, and the socio-cultural meaning of "Kim An-guk" in "Dong-sang Gi-chan." Through this study, I intended to reflect on the limitations of dichotomous thinking that distinguishes "normal" from "unnormal" through the so-called social standards.

First, I looked at the aspect of Kim An-guk's marginalized masculinity and the aspect of exclusion by hegemonic masculinity. Second, I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Kim An-guk and his wife Lee, who were excluded by hegemonic masculinity.

The way Kim An-guk's wife, Lee, drew his ability was somewhat unconventional in the traditional patriarchal standards. Behind that unconventional method was a solidarity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marginalized masculinity and the femininity that was subordinated to the other, following the existing orderly system of patriarchal society.

The way Kim An-guk succeeds in "Kim An-guk" and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others reveal the cracks in the values that hegemonic masculinity pursued. Kim An-guk, who will lead a family and further a patriarchal society as a patriarch, demonstrates his abilities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from what had been thought to be an absolute method so far. In terms of hegemonic masculinity, the existing order system begins to crack in that Kim An-guk, who used a so-called "unnormal" method that did not conform to tradition, is qualified to lead a family and society as a patriarch.

At a glance, the patriarchal order seems to be maintained solidly

because it met the standards presented by the traditional patriarchal society. However, it acknowledges the limitations of the traditional patriarchal order, which had been dominated by hegemonic masculinity, which had been solidified by acknowledging ways that have not been done before and heterogeneous methods led by femininities.

Now, there is no 'normal' method to define one absolute hegemonic masculinity and its hegemonic masculinity. "Kim An-guk" shows the mismatch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that traditional masculinity aims for.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marginalized masculinity will promote a new perception of the existing order that has kept the social system solid. It turns out that the existing traditional patriarchal order and the rules and methods for constructing it are, in fact, nothing but fiction. Masculinity faces the change.

Key Words

masculinity, patriarchy, hegemonic masculinity, marginalized masculinity, femininity, solidarity

논문투고일 : 2021.01.26

심사완료일 : 2021.02.08

게재확정일 : 2021.02.09